

# 나눔통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sup>1)</sup>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Giving Statistics

고경환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기부, 자원봉사, 헌혈과 같은 나눔은 혼자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고 현실을 너그러하게 한다. 나눔 실태를 파악하는 이들 통계는 서로 다른 연구 목적과 표본조사로 생산되고 있어 비록 동일한 통계명일지라도 범주와 결과의 차이, 분야별 연계 분석의 단절 등 통계의 신뢰와 활용에 제한이 있다. 특히 민간기관의 조사는 기부나 자원봉사활동 등에 목적을 두어 조사되지만 국가 미승인 통계라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나눔통계의 특성인 자발적 나눔 활동의 조사, 기부와 자원봉사 등의 연계 분석, 나눔 문화 확산 등을 위한 기존 통계의 쟁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 1. 들어가는 말

최근 국민의 다원화된 복지욕구로 자발적 나눔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남을 배려하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는 국민, 기업, 비영리조직 등

민간부문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나눔은 공공부문의 공급기능을 보완하고 보충하는 중요한 민간 자원이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변화시키는 자원으로 그 종류가 다양하다. 나눔은 자원이 부족하거나 필요한 사람에게 나

1) 본 글은 아래 보고서 일부를 발췌하면서 나눔통계의 생산 현황을 파악하고 쟁점과 개선 방향 도출에 초점을 두어 집필하였다. 장영식·고경환·이연희·김정현·오미애·강지원·진재현·함선유(2015). 나눔 실태 201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누어주는 기부금, 물품 기부, 자원봉사 등의 보편적인 나눔뿐만 아니라 꺼져 가는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생명나눔까지 종류가 많다. 이와 같이 나눔은 현금, 물품, 서비스, 그리고 신체 일부까지를 아우른다.

우리의 최근 나눔 현황을 살펴보면 기부가 약 12조 원(2014년)으로 국내총생산(GDP)의 0.81%, 15세 이상 인구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16.3%(2015년), 헌혈 약 305만 건(2014년), 생존자 장기이식 1,952건이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나눔의 현주소이다. 이들 나눔 관련 통계는 한 기관이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발전되어 왔다. 즉 주요 나눔 관련 통계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회공헌백서, 행정자치부 전국 자원봉사활동및기부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대한적십자사 혈액사업통계연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통계연보 등의 자료들을 모자이크 방식으로 취합하여 분석한다. 이들 나눔통계는 개별 연구 목적의 조사 중 기부, 자원봉사 등 일부 조사 항목을 곁들여 생산되는 통계들이 대부분이다. 이리다 보니 서로 다른 연구 목적과 표본조사에 기반을 둔 통계로 나눔 실태를 파악하고 있어 범주와 결과의 차이 등 활용뿐만 아니라 나눔 문화 정책 모색에도 어려움이 있다.

본 글에서는 나눔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나눔의 개념과 범위, 주요 나눔통계의 현황과 특성을 알아보고 개선 과제를 살펴본다.

## 2. 나눔의 정의와 범위

나눔은 우리의 고유한 문화를 반영하고 현시대 구성원들의 공감대로 정리되어야 할 개념이다. 기존의 나눔 개념을 바탕으로 일부 확장하여 본 글에서 나눔은 “자발적 의사를 가진 개인 또는 단체가 사회의 복지 향상과 공익을 위해 사회적·경제적 가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일 또는 호혜적 행위”로 정의한다.

자발적 의사는 나눔이 가진 특성으로 강제성이 없고 등가적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며 개인 또는 단체는 나눔 행위의 주체이자 동시에 객체이다. 사회의 복지 향상과 공익을 위하는 것은 나눔의 목적으로, 이타적이면서도 자기애를 의미한다. 사회적·경제적 가치 있는 자원은 나눔의 매개(수단)로 현금, 현물, 신체 일부, 시간, 재능 등과 같은 유형 또는 무형의 자원을 의미한다. 제공은 손에 잡히는 나눔에 대한 협의의 정의이며, 호혜적 행위는 남을 배려하거나 어려울 때 함께 나누거나 서로 돕는 공동체 기제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행위이며 나눔에 대한 광의의 정의이다. 이러한 행위는 세대 또는 세대 간을 아우르는 우리 집단(We group)을 의미한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것(give)’뿐만 아니라 상대와 함께 ‘나누는 것(sharing)’도 나눔으로 본다. 이러한 정의에 따를 때 나눔의 범위는 기부, 자원봉사, 생명 나눔, 상호부조까지 넓다.

다만 본 글에서는 나눔통계에 대해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까지 살펴보고 상호부조통계는 아직 논의단계인 만큼 다음 기회로 미룬다.

### 3. 나눔통계 현황

#### 가. 기부

정기적으로 수행되는 기부 관련 주요 통계로는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민간 부문의 “기빙인덱스”(아름다운재단), 그리고 행정자치부의 “전국자원봉사활동및기부실태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의 “기업및기업재단 사회공헌활동에 관한 조사” 등이 있다.

먼저 통계청 사회조사는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는 조사로 전국 13세 이상 남녀 17,664가구(2013년 기준)를 대상으로 기부와 참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기부는 조사하되 다음의 세 가지는 제외하고 있다. 먼저 친구·친척·직장 동료 등에 대한 경조사비, 각종 회비, 다음으로, 일반적인 종교단체 운영 목적인 헌금, 십일조, 보시, 시주 및 성당 신축 후원, 건축헌금 등, 끝으로 선거, 정치단체, 정치인을 위한 정치적 후원금 등이다.

다음으로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생활 수준 실태와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 조사는 1963년부터 분기 단위로 전국 8,700가구를 표본으로 한다. 나눔과 관련한 조사 항목은 지출 중 ‘비소비지출’에 해당하는 ‘비영리단체로 이전’ 항목이다. 이 항목은 종교기부금, 단체회비, 사회단체, 기타로 나누어 조사되고 있어 세부 분석이 가능하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 생활수준의 정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복지 관련 정책과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2만 가구를 표본으로 하는 패널 조사이다. 나눔과 관련한 조사에서 종교기부금, 기타 기부금, 직장노동비, 정기적 친목회비 등을 통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항목은 기부금 측정에 편리하나 기부 형태나 속성 등 정책 방안을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어서 국세청 국세통계는 국세행정의 보고통계로 기부금 현황은 신고한 금액만 포함하고 있어 면세자 및 미신고자의 금액은 누락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종교적 헌금이나 노조회비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나눔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또한 기부자에 대한 정보로는 과세액밖에 없어 나눔 정책의 기초통계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민간 부문의 조사통계는 정부 통계와 비교할 때 조사의 속성과 규모의 차이로 동질적 조사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과의 차이마저 크다. 예를 들어 『기빙인덱스 2013』과 『사회조사 2013』을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대상으로 비교하더라도 기부 참여율은 각각 48.5%, 34.9%, 국민 1인당 평균기부금액은 각각 15만 원, 7만 원으로 기빙인덱스가 더 높다(표 1). 참고로 ‘기빙인덱스(Giving Index)’는 아름다운재단이 국민의 기부와 자원봉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격년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7명(2014년 기준)을 대상으로 다단계 지역표본추출과 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방법으로 조사하

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행정자치부의 “전국자원봉사활동및기부실태조사”에서도 기부 참여율은 기빙인덱스(48.5%)보다 낮은 28.7%로 나타났다. “전국자원봉사활동및기부실태조사”는 만 20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 인구 수 비례할당추출방법으로 표본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조사 결과의 차이가 통계를 이용하는 정책 결정자 혹은 학계나 일반 국민에게 혼돈을 야기할 수 있다. 어떤 조사의 결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율이나 기부 금액은 1.7~4.4배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보고자하는 통계가 기부금이라면 기부금 조사에 비교적 근접한 조사 목적과 조사 방법으로 실시한 결과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

통계가 지닌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부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통계청의 사회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중 어느 통계를 봐야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사회조사는 사회 구성원의 주관적 관심사를 파악하는 조사임에 비해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생활수준 실태와 변동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가계의 수입과 지출을 조사한다. 또한 조사 방법은 두 조사 공히 면접조사이지만 후자는 이미 작성된 가계부를 참고한 조사인 만큼 기부액 통계에 더 신뢰가 간다. 다만 본 조사는 가구 단위 조사인 만큼 기업영역은 제외되어 있다. 나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순수 기부금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에서 기부통계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1. 조사기관 간 기부 관련 통계 결과의 차이 비교

	통계청 사회조사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행정자치부· 한국자원봉사문화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아름다운 재단 기빙인덱스
조사 시점	2013년	2013년	2014년	2014년
조사 대상	17,664가구	8,700가구	1,500가구	1,007가구
기부 참여율	34.9%	-	28.7% <sup>1)</sup>	48.5%
기부금액(평균)	7만 원	4.6만 원	20.3만 원 <sup>1)</sup>	15만 원

주: 1) 평균 기부금액 조사 시 '종교기부'와 '자선기부'로 구분하고 있음. 본 표에서는 자선적 기부 수치만 제시함. 2014년 종교기부금은 72.1만원, 종교 기부를 포함할 경우 참여율은 40.8%임.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2013;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13; 행정자치부·한국자원봉사문화(2014), 자원봉사활동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아름다운 재단 기부문화연구소(2014), 기빙코리아 2014-제14회 기부문화심포지엄 자료집.

표 2. 기부 관련 통계의 현황 요약

통계명	조사내용	표본구성	작성기관	특징
사회조사	기부 여부, 기부 횟수/액수, 정기기부, 기부/미참여 이유, 기부 대상인지 경로, 기부 희망 분야, 향후 기부 의사, 유산 기부 의사 등	만 13세 이상, 37,000여명 2년 주기 조사, - 지난 1년 동안 행해진 개인기부 행위 조사	통계청	- 순수 자선 기부액 파악 용이, 개인의 인구학적·사회경제적 요인별 기부실태 분석 가능
가계동향조사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액수 (종교,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전국 일반가구로 표본 규모는 약 9,000가구	통계청	기부 총량 파악과 순수 자선 기부액 파악 용이
가계금융·복지조사	비영리단체로의 이전 액수 (종교, 직장노조비, 기타기부금, 정기적 친목회비)	전국 20,000가구, (조사구당 10가구 추출)	통계청	통합적 기부금 측정은 편리하나 기부 형태나 속성 분석에 한계
국세통계연보	개인과 법인이 소득공제 신청을 위해 자발적으로 신고한 금액 (개인) 기부금특별공제액 (법인) 기부금신고액	보고통계	국세청	기부금에 면세자나 미신고자 누락, 기부자 정보로 과세액만 있어 나눔 통계의 다양한 생산에 한계
기빙인덱스	기부 실태,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 (경조사비 지출), 기부 의향 및 계획, 유산 기부, 나눔교육 인식, 사회적 자본 등	만 19세 이상 전국 성인 남녀, 지역별/성별/연령대별 할당표본추출. 표본 규모는 약1,000명, 대면면접조사	아름다운재단	일반적인 기부뿐 아니라 종교적 기부, 상호부조 파악이 가능
전국자원봉사활동 및기부실태조사	1년간 기부 여부, 기부처, 기부 방식, 기부액 및 기부 물품, 기부 경로 등. 기부액은 종교(교회나 성당, 사찰의 헌금)와 자선(종교 기부 제외) 구분해 조사	만 20세 이상 성인,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수 비례할당추출 1,500명 조사 조사 주기 3년	행정자치부	자선적 기부와 종교적 기부의 구분 통계 생산이 가능(자선적인 특성과 기부금액, 기부자 정기성·기부 횟수)

나. 자원봉사

현재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관련 주요 통계로는 통계청의 ‘생활시간조사’와 ‘사회조사’,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 통계연보’, 행정자치부의 “전국자원봉사활동및 기부실태조사”, 아름다운재단의 ‘기빙 코리아 (Giving Korea)’등을 들 수 있다. 먼저 통계청

의 생활시간조사는 개인의 시간 활용과 의식을 파악하여 국민의 생활 방식을 측정하는 5년 주기 조사로 8,000~12,000가구를 조사하고 있다. 다음 통계청 사회조사의 조사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시간, 주기성, 인지 경로,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활동 여부, 향후 의사 등이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

연보는 국민의 자원봉사활동 참여 촉진과 생활화 유도 목적의 사회복지시설 자원봉사 관련 보고통계이다. 보고내용은 사회복지자원봉사 일반 현황, 사회복지자원봉사자 1인당 연간 평균 자원봉사활동 시간 및 횟수, 자원봉사활동 시간 및 횟수 등이다.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통계 현황을 총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원봉사활동 조사는 지난 1년간의 회상을 통해 조사되고 있어 응답에 있어 기억의 한계가 있다. 더구나 본 조사는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 파악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만큼 자원봉사활동 통계는 부수적으로 파악되는 특징이 있다.

다음 자료에 따라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먼저 포함하는 조사는 행정자치부의 '전국자원봉사활동 및기부실태조사'와 통계청의 '사회조사'이다. 반면 포함하지 않는 조사는 아름다운재단의 '기빙코리아(Giving Korea)', 복지부 '사회복지자원봉사통계연보' 등이다. 종교단체의 봉사활동 중 순수종교봉사(예: 예배 관련 봉사)와 종교단체의 봉사활동으로 구분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자발적 참여에 의한 활동인 만큼 의무적 참여는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위의 조사에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의무적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된 특징이 있다. 즉 사회조사와 생활시간조사는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사가 아니어서 조사 문항의 수가 제한적이고, 자원봉사활동 분야와 유형, 기관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끝으로 행정자치부가 6개 중앙부처의 자원봉사포털을 연계하여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행정자치부는 통계 생산에 있어 포털 간 중복성이 높아 통합된 통계를 생산하지 않고 있다. 참고로 6개 포털은 행정자치부 1365자원봉사포털,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VMS), 여성가족부 청소년자원봉사, 교육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공원 자원봉사 관리 시스템 등이다. 나눔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을 분석할 수 있는 관점에서 자원봉사통계의 현황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자원봉사 관련 통계의 현황 요약

통계명	조사내용	표본구성	작성기관	특징
생활시간조사	시간 일지 작성 2일 동안 자원봉사활동 시간과 활동 장소, 이동시간, 함께 한 사람 조사	표본추출 가구서 만 10세 이상 가구원 약 27,000명 조사(2014). 조사 주기는 5년, 2일씩 시간 일지 작성	통계청	개인의 시간 활용과 생활 방식을 측정, 성별·요일별·시간 간격별 봉사활동 비율, 분야별 자원봉사 비율 등 다양한 통계 생산
사회조사	자원봉사활동 여부·정기성·인지 경로, 전문성을 활용한 자원봉사, 향후 자원봉사활동 의사 등	〈표 2〉 참고	통계청	'지난 1년간' 조사로 기억의 한계
전국자원봉사활동 및기부 실태조사	자원봉사활동처 및 활동 분야(14개) <sup>1)</sup> , 자원봉사 참여 동기, 자원봉사 참여 경로 및 참여 요청, 자원봉사활동 시간 및 기간, 자원봉사활동 만족도, 자원봉사자 인정, 자원봉사에 대한 국민 인식 등	〈표 2〉 참고	행정자치부	자발적 참여와 학생들의 의무 참여 모두 포함
사회복지자원 봉사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자원봉사 인증관리' <sup>2)</sup> 시스템을 통해 생산·관리 되고 있는 통계 정리·요약한 것  (개인) 자원봉사자 수, 활동 횟수·시간·분야 등	사회복지자원봉사관리센터 11,480곳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기초로 생산	보건복지부	자원봉사자, 자원봉사활동 시간, 횟수와 관련된 현황은 시도별·시설종별·연령대별·성별·직업별·최종 학력별 통계 작성
기빙인덱스	(개인) 활동처별 참여율 및 참여 시간, 정기 참여율, 인지 경로, 미참여 이유 등 (기업) 참여율, 활동 영역, 평균 시간 등	〈표 2〉 참고	아름다운재단	자원봉사형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봉사 분야, 인지 경로, 시간, 빈도, 정기성의 연계 분석)
1365자원봉사포털 통계	인구 대비 자원봉사활동자 현황,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연간 총인원 현황, 1회 이상 활동한 실제 봉사 인원 현황, 자원봉사활동 분야별 현황, 연령별 현황으로 구성	행정자치부가 전국의 자원봉사 정보를 한 곳에 모아 다양한 자원봉사를 검색,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6개 중앙부처	포털 간 중복성이 높아 통합한 통계 미생산

주: 1) ① 보건의료(기관), ② 교육(기관), ③ 종교단체, ④ 사회복지(기관), ⑤ 환경(단체), ⑥ 공익민간(단체), ⑦ 공원 거리 등 다양한 지역사회 현장, ⑧ 예술, 문화, 스포츠(단체), ⑨ 직능단체, 전문기(단체), 노동조합, ⑩ 공명선거, 정치 및 정당(단체), ⑪ 관공서(구청, 동사무소 등), ⑫ 청소년(단체), ⑬ 재난 재해 현장, ⑭ 국제기구 등  
2)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 보건·의료,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 등 봉사활동 현장별 실적 관리

#### 다. 생명나눔

현재 생명나눔통계에는 혈액사업통계연보와 장기이식통계연보의 두가지가 있다. 먼저 혈액사업통계연보는 국내 헌혈자, 수혈자, 의료기관 헌혈 현황을 제공하는 통계로 혈액관리법(제12조)에 의거해 적십자 소속 혈액원과 적십자 외 혈액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것이다. 다음 장기이식통계연보는 장기 등과 관련된 기증자 및 기증 희망 등록자, 이식자, 이식 대기자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통계이다. 장기이식통계는 장기기증 및 이식 적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생존율 및 이식 대기 시간은 이식일을 기준으로 한다. 한 명의 이식자에 의해 다수의 장기를 이식받는 경우 장기별로 집계되므로 실제 이식자와 이식 장기 수는 다를 수 있다.

장기기증은 가족 간 장기기증과 타인 간 장기기증으로 분리하여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며 실제 이식한 사람만 통계에 반영되고 있다. 또한 인체조직은 사후 채취 후 검사 결과에 따라 가공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기증 및 이식을 분리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 등'의 정의를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와 골수, 안구로 규정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다만 골수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의 하나로 최근에는 대부분의 기증자들이 말초형 조혈모세포이식 방법을 선택하고 있지만 아쉽게도 이에 관한 통계는 생산 과정에서 누락되고 있다.

### 4. 쟁점과 개선 방향

#### 가. 기부

통계 생산 관련 조사의 내용과 범위 측면에서 개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세통계의 기부 규모는 기부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만 통계에 반영되며 미신고의 경우는 누락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경제활동자는 기부나 헌금에 대해 신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신이 면세자로 미신고하면 거래 상대방의 과세 자료가 그만큼 과소신고되게 된다. 소득의 다과와 무관하게 모든 소득자가 국가 재정을 부담하는 조세 구조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2014년 모든 소득자 중 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48%였다. 또한 국세청이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기부금특별공제 내역을 공표하면 속성 분석이나 모수 추정에 유익한 기초자료가 더 생산되리라 본다.

다음 기부금에 종교적 헌금을 포함하는 조사와 그렇지 않은 조사가 있다. 국세통계연보와 가계동향조사는 포함하는 데 비해 사회조사는 제외하고 있다. 기부통계에서는 종교헌금 중 사회에 공헌하는 지출은 기부금에 포함하고, 종교적 고유 활동비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끝으로 국세통계연보와 가계동향조사에 여러 항목을 포괄한 가구당 월평균 지출액을 공표하고 있다. 앞으로 순수 자선적 기부액을 파악하기 위해 종교기부금과 단체회비 항목이 분리되어야 한다.

## 나. 자원봉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조사의 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의 자원봉사 측정 매뉴얼(2011)에서 제시하는 자원봉사활동의 7가지 특성에 따르면 순수 종교활동은(예배) 제외하나 종교기관이나 복지기관(시설) 등의 활동은 포함한다.<sup>1)</sup> 즉 순수 종교활동이나 학점 및 졸업 등을 위해 요구되는 요건으로서의 자원봉사활동은 배제할 필요가 있다.

먼저 ILO의 매뉴얼에 따르면 종교단체 내의 자원봉사활동(예: 주일교사, 예배 진행 관련 자원봉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며, 종교단체 주관 외부 기관 대상의 자원봉사활동은 포함한다. 지역사회 독거노인 대상 김장 담그기 행사,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대상의 무료 이·미용 서비스 제공 등이 그 예다.

다음으로 학령기에 의무적으로 행하는 자원봉사활동은 배제되어야 한다. 이유는 학교의 의무 자원봉사시간이 자발적 자원봉사 시간과 합산되면 순수 참여자의 활동이 그만큼 잠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동청소년기의 자원봉사활동 경험은 미래 성인이 되었을 때 참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나눔 교육 측면에서 이를 경험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통계의 신뢰성 제고를 위

해 학생들의 강제적 봉사를 걸러 낼 질문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간 개인이 수행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측정하고 후속 문항으로 “이 중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규정한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라는 질문을 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은 조사 대상 시점이 너무 짧으면 이들 활동을 많이 놓칠 수 있고, 반면에 너무 길면 회상의 정확도가 낮아질 수 있다.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조사는 기준 시점을 1년으로 하지만, ILO는 4주간의 조사 기준 시점을 제안하였다. 특히 회상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지난 한 달간의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조사 문항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기 위해 활동 분야를 세분화해야 한다.

현재 사회조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처와 활동 영역의 유사성을 기준으로 분야를 나누고 있어 경제 가치 산출에 한계가 있다. ILO의 경우는 직업분류(ISCO-08코드)와 산업분류(ISIC Rev. 4 코드)를 사용하고 있어 경제적 가치 산출이 용이하며 국가 간 비교도 용이하다. 나눔의 현황 파악과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국제 비교 가능한 경제적 가치 산출이 요구된다.

2) ILO. 2011. Manual on the Measurement of Volunteer Work. Geneva:Author, pp.11~17.

자원봉사활동의 7가지 특성은 근로, 무보수, 비강제성, 조직 기반+개인, 직계가족 불포함, 모든 형태의 기관 대상, 대상자의 제한 불필요 등임.

**다. 생명나눔**

통계 생산 관련 법률조항과 개별 대학의 연계를 중심으로 개선 내용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먼저 ‘골수’ 기증은 통계가 생산되고 있으나 동일 영역의 조혈모세포기증은 생산되지 않고 있다. 이유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골수’만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골수는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에 불과하다. 참고로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다. 말초혈 조혈모세포 이식,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 그리고 골수이식 방법이다. 통증이 큰 골수기증에 대한 기증자의 거부감과 두려움을 완화하고자 최근 조혈모세포기증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근래 장기기증 현장에서는 약 80% 이상이 말초혈

조혈모세포로 이식하고 있으며 나머지 제대혈 조혈모세포 이식이나 골수이식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사회 변화 반영과 올바른 통계 생산을 위해 법률조항(제4조 1항 나)의 ‘골수’를 ‘조혈모세포’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다음 장기기증이나 조직기증에 대한 실태 파악 및 신청은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및 한국인체조직기증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시신기증에 대해서는 개별 대학의 의과대학 인체해부학실에 신청하고 있어 이에 대한 통계 생산의 한계가 있다. 향후 개별 대학의 의과대학 인체해부학실에서는 신청 받고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나눔 현황을 올바르게 파악하기 위해 조사 관점에서 개선 사항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 나눔통계 생산 개선 내용 요약: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부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내용만 통계에 반영, 모든 소득자가 기부나 헌금에 대해 신고하도록 유인정책이 필요(소득의 다과와 무관하게 모든 소득자는 국가 재정 부담하는 구조 지향, 2014년 소득세 면세자 비율 48%).</li> <li>- 국세청이 기부금특별공제 내역을 세부적으로 공표하면 기부 관련 다양한 속성 분석의 추가 자료 생산 가능</li> <li>- 기부금통계의 종교헌금 중 사회공헌지출은 기부금에 포함하고, 종교 고유 활동 지출은 제외하는 것이 타당.</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원봉사활동 중 종교단체 주관 외부 기관 활동은 포함하는 반면, 종교단체 내의 자원봉사활동(예: 주일교사, 예배 진행 관련 자원봉사 등)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함 [ILO의 자원봉사측정 매뉴얼(2011) 기준].</li> <li>- 학령기 의무적 자원봉사활동은 배제되어야 함. 이를 위해 추가 질문 필요.</li> <li>- 자원봉사활동 조사에 대해 ILO는 4주간 조사 기준 시점 제안, 국내 조사는 1년 시점 사용. 특히 기억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어 지난 한 달간의 조사 문항 병행 제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 생산 관련 법률조항의 개정(골수를 조혈모세포로).</li> <li>- 개별 의과대학과의 정보 연계 체계 강화.</li> </ul>

## 5. 나가며

지금까지 한국의 나눔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관련 통계의 현황과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살펴 보았다. 통계 현황은 기부, 자원봉사, 그리고 생명나눔의 주요 통계를 중심으로 모자이크 방식으로 살펴보았다. 이들 통계들은 개별 통계로서는 의미가 높지만 순수 자발적 나눔의 파악, 동일 통계의 상이한 결과, 그리고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간의 연계 분석이라는 측면에서의 단절 등 통계 활용과 신뢰에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기존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통계청 사회조사 등에 나눔 종류별 국민 인식, 나눔 참여 현황, 상호부조 현황 등과 국제 기준의 자원봉사활동 개념과 범주에 적합한 문항의 보완

이 필요하다. 다음, 동일 통계명이지만 통계 결과가 상이한 경우 이들 중 선택을 해야 한다. 이 경우는 보고자 하는 통계에 비교적 근접한 조사 목적과 조사 방법으로 실시된 조사를 선택해야 한다. 동시에 그 통계가 지닌 한계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판단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나눔 관련 통계의 메타데이터 구축이 요구된다. 셋째, 기존 모자이크 나눔에 대한 종합적 연계 분석을 할 수 있는 독립적 나눔조사를 제안한다. 신규 조사는 기부, 자원봉사, 생명나눔 등 개별 및 연계 분석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인 단위, 기업 단위, 매개기관 단위로 구분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주기적 조사 실시로 통계를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실태 파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